여자 양궁, 올림픽 단체전 8연패

기보배 · 장혜진 · 최미선, 러시아 5-1 로 누르고 금메달

8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삼보드로모 양궁 경기장에서 열린 2016 브라질 리우올림픽 여자 양궁 단체전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결승전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 대표팀 장혜진(왼쪽부터), 최미선, 기보배가 취재진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한국 여자 양궁 단체전 대표팀은 러시아를 상대로 세트스코어 5-1로 승리하며 정상에 올랐다.

남자 유도 안바울 은메달
여자 역도 윤진희 동메달

한국 여자 양궁이 올림픽 단체전 8연패를 달성했다.

남자 유도 안바울(22 · 남양주시청)은 생애 처음으로 나선 올림픽 무대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돌아온 역사(力士)' 윤진희(30 ·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암흑기에 빠진 한국 역도에 희망을 안기는 귀중한 동메달을 땄다.

기보배(28 · 광주시청)-장혜진(29 · LH)-최미선(20 · 광주여대)으로 구성된 여자 양궁대표팀은 8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삼보드로모 경기장에서 열린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 러시아를 세트스코어 5-1(58-49 55-51 51-51)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한국 여자 양궁은 올림픽 단체전 8연패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양궁 단체전이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이번 대회까지 8차례 치러진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

한국이 올림픽 양궁 종목에서 따낸 금메달 개수는 '21개'로 늘어났다.

전날 남자 단체전에 이어 여자 단체전까지 제패한 한국은 사상 첫 올림픽 전 종목(남녀 개인전 · 단체전) 석권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안바울은 올림픽파크 카리오카 아레나2에서 열린 대회 남자 유도 66kg급 결승에서 이탈리아의 파비오 바실레에 한판패를 당해 은메달에 머물렀다.

한국 유도는 전날 여자 48kg급에서 정보경(25 · 안산시청)에 이어 안바울까지 은메달을 기록해 이틀 연속 금메달 수확에 실패했다. 세계랭킹 1위인 안바울은 준결승에서 '천적' 에바누마 마사시(일본)을 꺾고 결승에 올랐으나 결승에서 세계랭킹 26위에 허를 찔리고 말았다.

역도에서는 윤진희가 낭보를 전했다.

윤진희는 리우 센트루 파빌리온에서 열린 대회 역도 여자 53kg급에서 인상 88kg, 용상 111kg, 합계 199kg으로 3위에 올랐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노메달'에 그친 한국 역도에 위안을 안기는 동메달이었다. 윤진희는 4위에 머무는 듯 했으나 중국의 리야쥔이 실격 처리되면서 극적으로 동메달을 품에 안았다.

전날 수영 남자 자유형 400m에서 결승 진출에 실패한 박태환(27)은 자유형 200m에서도 예선 탈락했다. 박태환은 올림픽 아쿠아틱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자 자유형 200m 예선 마지막 6조에서 1분48초06으로 최하위인 8위에 그쳤다.

신태용(46)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은 사우바도르의 폰치 노바 아레나에서 열린 독일과의 조별리그 C조 2차전에서 난타전 끝에 3-3 무승부를 거뒀다. 1승1무(승점 4)가 된 한국은 멕시코(1승1무 · 승점 4)를 제치고 조 1위로 올라섰다. 멕시코와 승점은 같지만 골득실(한국 +8 · 멕시코 +4)에서 앞섰다.

한국 축구는 멕시코와의 조별리그 3차전에서 무승부 이상을 기록하면 8강행 티켓을 거머쥔다. 만약 한국이 멕시코에 패하더라도 최종전에서 피지가 독일을 꺾는다면 한국은 조 2위를 차지해 8강에 오를 수 있다.

나아름(26 · 삼양사)은 코파카바나 해안도로에서 벌어진 여자 개인도로에서 3시간58분3초의 기록으로 30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민근기자

애덤 피티, 남자 평영 100m 결승 세계신기록 달성

셰스트륌 여자 접영 100m · 케이티 레데키 여자 자유형 400m 금메달

애덤 피티(22 · 영국)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올림픽 아쿠아틱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수영 남자 평영 100m 결승에서 57초13의 세계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딴 뒤 기뻐하고 있다.

애덤 피티(22 · 영국)가 하루만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계기록을 갈아치웠다.

피티는 8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올림픽 아쿠아틱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수영 남자 평영 100m 결승에서 57초13의 세계신기록으로 터치패드를 찍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해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영국선수권대회에서 처음으로 58초의 벽을 허문 피티는 전날 예선 6조에서 57초55를 기록해 16개월만에 세계기록을 0.37초 단축했다.

피티의 남자 평영 100m 세계신기록은 이번 올림픽 경영 종목에서 나온 5번째로 나온 세계기록이다.

남자 평영 100m에서는 카메론 판 데르 부르흐(남아프리카공화국)가 58초69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동메달은 58초87을 기록한 코디 밀러(미국)의 차지였다.

피티에 앞서 사라 셰스트륌(23 · 스웨덴)은 여자 접영 100m 세계신기록을 수립, 이번 올림픽 경영 종목 4번째 세계신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셰스트륌은 수영 여자 접영 100m 결승에서 55초48로 터치패드를 찍어 세계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여자 접영 100m에서는 페니 올레크시아크(16 · 캐나다)가 56초46으로 은메달을, 다나 볼머(29 · 미국)가 56초63으로 동메달을 땄다.

'여자 펠프스' 케이티 레데키(19 · 미국)는 여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3분56초46을 기록, 세계기록을 갈아치우며 금메달을 품에 안았다.

이번 올림픽에서 다관왕을 노리는 레데키는 여자 계영 400m에서 미국대표팀으로 나서 은메달을 딴데 이어 금메달을 추가, 이번 대회 메달을 2개로 늘렸다.

피티와 셰스트륌, 레데키 외에 카틴카 호스주(헝가리)가 여자 개인혼영 400m에서 4분26초36의 세계신기록을 수립했다.

특히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31)는 이날 계영 400m에서 1개의 금메달을 추가하며 올림픽 통산 19번째 금메달로 역대 올림픽 최다 메달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또 런던대회까지 통산 22개의 메달을 기록한 펠프스는 올림픽 사상 개인 최다 메달(23개) 기록도 함께 썼다.

/김민근기자

성은정, US여자아마추어골프선수권 우승

차세대 여자골프의 주역 성은정(17 · 금호중앙여고)이 미국 아마추어 골프 역사를 새롭게 썼다.

성은정은 8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스프링필드 룰링그린 골프클럽(파 71 · 6259야드)에서 열린 US여자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마지막 날 36홀 매치플레이로 치러진 결승에서 버지니아 엘리나 카르타(19 · 이탈리아)를 1홀차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18세 미만이 출전하는 올 US여자주니어선수권대회 우승자인 성은정은 연령 제한 없이 아마추어 최고의 선수를 가리는 이 대회 우승으로 한 시즌에 주니어와 아마추어 두 개 대회를 동시에 우승하는 선수가 됐다.

이날 우승으로 성은정은 미국골프협회(USGA) 주관 매치플레이 대회에서 25승4패를 기록했다. 그는 USGA가 주관한 대회에서 한 시즌에 다승을 챙긴 세 번째 여자선수로 기록됐다.

재미동포 펄신이 1988년 US여자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와 US여자아마추어퍼블릭링크에서 우승했고, 2009년 제니퍼 송이 펄신과 같은 두 대회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김민근기자

쑨양, 호튼의 약물 사기꾼 비난에 "나는 1500m 왕이다"

"나는 1500m 왕(King)이다."

중국의 수영스타 쑨양이 자신을 '약물 사기꾼(Drug Cheat)'으로 비난한 2016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남자 수영 400m 금메달리스트 맥 호튼(호주)에 대해 응수했다.

8일(한국시간)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쑨양은 400m 결승전 종료 후 현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자유형 1500m 세계기록을 가지고 있다. 내가 왕이다"라고 보도했다.

쑨양은 2012런던올림픽 남자수영 자유형 1500m 금메달리스트다. 14분31초02의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세계적인 수영스타로 거듭났다.

앞서 호튼은 지난 7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아쿠아틱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남자 수영 자유형 400m에서 3분41초55를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대회 2연패를 노리던 쑨양은 0.13초 뒤진 3분41초68로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호튼은 경기 후 "쑨양이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동안 약물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써왔다. 경기 전 쑨양이 내게 인사를 했지만, 나는 그를 무시했다. 쑨양과 내가 라이벌인지는 잘 모르겠다. 내게 쑨양은 약물 양성 판정을 받은 선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민근기자

이치로, 동양인 최초 MLB 통산 '3000안타' 달성

'살아있는 전설' 스즈키 이치로(42 · 마이애미 말린스)가 메이저리그 통산 3000안타 대기록을 작성했다. 빅 리그 데뷔 16년 만에 세운 동양인 최초 기록이다.

이치로는 8일(한국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쿠어스필드에서 열린 2016 메이저리그(MLB)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경기에서 중견수 겸 6번타자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1득점 1볼넷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317이 됐다.

전날 콜로라도전에서 8회 대타로 출전해 내야안타로 2999안타를 때린 이치로는 이날 앞선 세 타석에서 무안타로 침묵했지만 4번째 타석에서 안타를 쳐냈다.

이치로는 팀이 8-6으로 이기던 7회초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콜로라도의 2번째 투수 크리스 루신을 상대로 3루타를 날렸다. 이날 안타로 이치로는 메이저리그 역대 30번째 3000안타 주인공이 됐다. 130년이 넘는 메이저리그 역사에서 통산 최다 안타 기록을 보유 중인 피트 로즈(4256안타)부터 시작해 뉴욕 양키스의 '영원한 주장' 데릭 지터(29번째)까지 29명이 작성한 대기록이다.

/김민근기자